

[문의] 이영일 사무총장 010-9033-8613 / youngil0505@hanmail.net

신고리 5,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 대환영

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 일깨운 계기
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맞을 때까지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와 협력

- 신고리 5,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월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.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(원국연)는 신고리 5,6호기 건설 공사 재개라는 권고안이 도출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, 또한 과장 및 왜곡된 정보가 많았는데도 시민참여단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어진 깊은 감사를 드린다.
- 이번 신고리 5,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은 원자력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. “적정 수준의 전원 믹스를 찾아라”, 즉 일정 규모의 원전을 지속적으로 튼튼하게 건설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라는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와 함께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안전 기준 강화라는 숙제 또한 던져 주었다. 또한 잘 지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값싸게 전기를 공급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.
- 이번 공론 조사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건설 재개 의견이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증가한 것이다. 이는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으로, 원국연은 이를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 원자력의 정확한 내용을 사실에 입각해서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.

- 최근(10. 9)에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 APR1400의 유럽수출형인 EU-APR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(EUR) 인증 본심사를 통과하였으며, 지난 8월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(NRC)의 설계 인증심사도 사실상 통과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원전 선진국들이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.
- 원자력에너지는 현재 지구 환경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 수출국으로의 입지를 굳힐 기회도 커지고 있다. 영국, 사우디아라비아, 체코뿐만 아니라 남아공, 이집트가 바로 그 기회의 땅이다.
- 원자력에너지는 화석에너지 시대에서 신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을 가장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체 에너지이다. 국내 원자력 종사자들은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맞을 때까지 원자력이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더 나은 에너지 정책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.

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공동대표 장인순, 이중재